

영원한 사랑에 대하여.

작성일 : 2010. 03. 12. (금) 새벽 5 :30

작성자 : 김은진 (대구스타교회)

[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던 중 영원한 사랑에 대해 여쭙어 보았습니다. “주님 진정한 영원한 사랑은 무엇
입니까?

뜻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. 진정 알고 싶습니다. 주님과 영원한 그 사랑을…….”이렇게 기도드릴 때 주신 말
씀입니다.]

* 예수님 말씀(하나님 말씀) *

영원한 사랑.

그 사랑은 나와 성령,

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하는

그리고 진정 너희가 이곳에 와

나와 영원히 거하며

하게 되는 사랑이다.

사랑은 모든 것을

소생하게 만들고, 모든 것을

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고,

불가능도 가능하게

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하였지?

그렇다면 영원한 사랑은,

절대 깨어지지 않는 나의

이 천국을 존재케 하고,

진정 죽음의 사람들을

생명의 삶으로 돌리는

크나큰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의 근원이다.

내가 내 모든 사랑으로 우주, 지구, 만물

그리고 너희를 만들 때 너희는 가히

알 수도 없을 만큼의

시간이 흘렀으나,

그 모든 것 이루고 지금까지도

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한 근원은 사랑이다!

하지만, 보통의 사랑 이었다면
벌써부터 깨어졌을 것이다.
영원하고 영원한 절대 깨어지지 않는
진정한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
그 모든 것 가능케 된 것이다.

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?
절대 이 육계에서의 너희 인간끼리의 사랑은
영원할 수 없다.
끝이 있기 마련이다.

그러나 나의 역사, 나의 사랑은
끝이 없이 더 해가는 사랑이란다.
그 사랑의 깊이가, 그 사랑의 넓이가,
갈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구나.

영원한 사랑. 그 영원한 사랑.
목숨까지 내건 사랑이라
표현하여도 부족하구나.

너희 인생 100년 한평생
한 사람만을 변함없이,
단 한 번도 다른 마음 없이
사랑한자 있느냐? 없지 않느냐?
그처럼 영원한 사랑의,
사랑의 급은
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.

그냥 사랑이 손톱만한
다이아몬드 사랑이라면,
영원한 사랑은 목성 크기만 한
다이아몬드 사랑이라 하면
감이 오느냐?

이리 표현하여도
다 표현 할 수 없구나.
육계는 끝이 있도록 창조하였기에
그 영원함을 표현하여도
알지 못하고 또한 표현키도 어려운 것이다.

그러나
그 영계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에
그 영원함 표현키 쉽지!
허나 모두 같은 영계라 할지라도
영원한 사랑을 하는 자는 드물다.

여기서 내가 말하는
영원한 사랑은 내 기준에 따른,
영원한 사랑인 것이다.

즉, 천국은 영의 세계이자
사랑으로 이루어졌기에,
사랑이 없이는 존재 할 수조차도 없는 곳이다.

그러하나 모두가 다 같은 사랑과
기쁨을 누리나,
‘좀 더 가까이 나의 곁에서,
진정 나만 바라보며,
내게 모든 것 쏟으며,
나와 영원 세세 무궁토록 사랑하며
나와 사랑의 대상체되어 사랑하는 것.’
그것을 말하노라.

생각해보아라.
영원한 사랑이 그리 쉽겠느냐?
천국의 천군, 천사들도
나를 경외하고 사모하며,
존경하고 사랑하나
나와 영원한 사랑함에 있어서
그 대상체는 될 수가 없다!

그러나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
나 또한 그들을 사랑한다.
그러나 그들은 너희와 창조의
목적이 조금은 다르지.

그래!
내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한 너희 인간만이
나와 진정한 A급의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.

나와 성령, 그리고 예수는
온전한 영원한 사랑 하고 있다.

그리고 너희 선생이 그가 지금
그 영원한 세계의 사랑!
영원한 사랑에 대해 날이 갈수록
그 급 높아지며,
진정 그 사랑의 역사 이루고 있구나.

육의 눈으로 너희 선생을 바라보지 마라.
그는 너희가 생각하는
차원과 수준을 벗어난 자로서,
나의 생각과 수준에 들어온 자니라.
그러니, 너희는
감히
그 사랑의 깊이 알 수 없다.

이제 섭리사
나의 모든 신부들은 들을지어다.

내 사랑,
영원히 나와 알콩 달콩 달콤하고,
깊고, 행복하단 말도 부족한
그 사랑 하고자 한다면
진정 너희의 모든 것 버려라!

너희의 주관, 사고,
나보다 더 중심한 모든 것 버릴지어다.

그 후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면,
너희는 전심을 다하여
내게 그 사랑주고
내게 그 마음 표현하며
내게 조금씩 다가와
갈수록 깊고 영원한 사랑을 하자.

나는 너희 영원토록
사랑할 준비가 되어있으니,
이제는 어서 속히

너희가 나의 그 단계를
나아오는 일만이 남았구나.

그러니,
매일 매 삶에 나와 동행하며,
나와 일체되어
1차 휴거를 꼭 맞으라는 것이다.

늘 너희 마음을 단속하고 살피며 보아라.

그 모든 사랑,
그 모든 심정 내게 내려놓고
나아오고 보아라.

나의 사랑하는 신부들…….
나와 더욱 일체되고 하나 되자.
절대 지금의 사랑에 안주하지 마라!

2차 휴거되면
모두 나와 깊은 영원한 사랑을 할 것이라
생각하느냐?

그렇지 않다.
한동네에서도 좋은 집,
보다 또 좋지 않은 집 있듯,

천국에서도 그러하고,
천국에서도
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
그 급 달라지는 것이다.

그러니,
더욱 내게 그 사랑 가지고 나아오라.
말씀 중심하여 상고하고,
내게 기도하여 다가오고,
너희를 늘 정결히 만들고,
나에게 그 사랑 늘 줄지어다.

사랑한단다.
나의 신부 섭리 모든 나의 신부들아.
이젠 온전히 내게 모든 것 맡김으로

내게만 네 깊은 사랑 줌으로
진정 나의 수준과 차원에서의
영원한 사랑을 이루자꾸나.

알았지?
늘 날 생각하고 모든 것 행하길 바라노라.
진정, 진정 사랑하노라.

너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,
너희의 유일한 사랑 나 주 여호와.

순수히 내게 나아오라.

작성일 : 2010. 03. 12. (금) 저녁 8 :35
작성자 : 김은진 (대구스타교회)

안녕하십니까? 대구스타교회 김은진입니다.

2010. 03. 12 금요성령집회 때

[주님께 선생님 생각하며, 기도하였습니다. “3월이 다른 날보다 더욱 시리게 느껴지고, 선생님이 많이 생각나는 까닭은 선생님의 생신이 있기에 그런가 봅니다. 더욱이 함께 하지 못하니 더욱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.”라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.]

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
어느 한 나라에 깊고도 깊은 산골짜기…….
갓은 전쟁 후 물속의 물고기들 보다,
더 먹을 것 없이 살던 그 시절,
천천 산속 애타게 나를 부르고,
나에게 죽기 직전의 그 상황에서도
내게 매달리며
나를 애타게 찾는 소리 있었구나.

그자가 바로 너희 선생이다.
그는 너희가 아는 공생애 그 기간 전,
사생애 때부터 그의 삶은
너무도 시리고 추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,
그보다 더 시리게 되었던 내 사랑의 역사에
다가오려는 그 소년의 한 몸부림…….

내 심정, 내 사랑.
너무나 나에게 '사랑한다.'
내게 고백하던 자들 중,
등 돌리고 간 자 너무 많아서,
내 마음 찢어 놓은 자가
너무도 많아,
나는 그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.
그렇지 않고선 이 역사 펴 갈수 없으니 말이다.

진정 너무나, 너무나도 거세게 몰아치는
이 환란을 감당하며
절대 요동치 않는 자가 되려면,
그런 자 되려면
나는 그를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.

내 마음, 내 심정 그를 바라보며
나는 마음이 아팠단다.
또한 신기하기도 하였다.

어떻게 저렇게 어린 한 소년이
나를 이리도 찾고
나를 기다릴까?
내 마음 설레기 시작했구나.

그리고 생각했다.
'이 지구촌에 이와 같은 이들이
많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…….'하고 말이다.

그가 하고 싶고, 먹고 싶고,
자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,
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
내게 나아와 눈 덮인 산속에서
나 하나만을, 내 사랑만을 원하며 간구하고,
그 모든 마음 씩씩이 너무 너무 애뜻하여
내 가슴 울리는 구나.

그러나 사탄, 마귀, 잡귀신들이
그를 혼란케 시험 할 때도
나는 도와 줄 수 없었다.
그를 바라만 보았다.

왜인지 아느냐?

그가 직접 그 모든 것
이기고 와야 할 시험 이였기 때문이다.

어느 날, 그 작은 소년이
성경을 덮고 땅에 묻었을 때,
내 가슴은 철렁하고 무너졌다.

이 아이도 여기서 끝인가…….
나는 누굴 통해 진정 역사 펴야 하는가.

그런데, 그 소년이 다시
그곳에 와 성경을 다시 꺼내어
나에게 간구 하는구나.

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.
끊임없이 흘렀구나.
이때의 내 마음의 심경을
어떻게 표현 하겠느냐?
그를 더 지켜보았다.

조금이라도, 조금이라도
더 빨리 그에게 가서,
아니 당장이라도 나타나 안아주고 싶었다.

하지만, 그 모든 것 억누르며 참았다.
그리고 처음 내가 나의 모습이
아닌 다른 자의 모습으로
처음 그를 만나러 갈 때
어찌나 떨리던지…….

그에게 가,
여러 진리에 대해 가르칠 때 마다
나는 너무나 행복했단다.

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고
그 모든 것 실천한 선생이었다.
그와 보내는 시간,
너무나, 너무나 기쁨의 세계였구나.
기쁨과 화평의 삶.

내 맘속에 이 지구촌에
육의 모습으로 온 2000년간
이리 기쁜 적,
그 예전 처음 내 복음 펼쳐
많은 자들 따라올 때,
그 때의 내 마음과 같구나.
아니 어찌 보면 더 벅차올랐구나.

그러나 그 삶 너무나 힘들어,
그가 산에서 내려와
나와의 그 사랑의 만남을 잠깐 중단했던
그 이야기 들어보았느냐?

그때는 내 심장이 파열 된 것 같았다.
내 사랑과 기쁨이 사라졌으니
나는 정말 심장이 사라진 자와 같았다.

그 후, 그가 많이 수척해진 나를 보고서
눈물 흘리며 다시 돌아왔구나.
그래도, 그 연단을 멈출 수 없었다.
다시 그가 산을 내려가고
내 곁을 떠날까 걱정 했지만,
그 모든 것 멈출 수 없었다.

왜냐하면, 모든 그 조건으로
6000년의 한을 풀
신부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,
그 악랄한 사탄을 멸하고
굳건히 설 퇴비가 될 테니,

그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,
마음 졸이며,
그의 곁에 있었다.

그는 진정, 그 사랑…….
너무도 나를 진정 사랑하며 가는구나.
그리고 그 많은 우여곡절 후
78년부터의 이 역사로 펴 나간 것이다.

너희 선생, 세상의 지도자처럼

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부터
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,
그 이전부터 그 모든 삶,

그 모든 사랑, 그 정신
변함없이 지금도 나아간다.
너희는 잊지 마라.
이 역사 내 아버지의 역사이며,
내 어머니의 역사이며 나의 역사이다.
그러나 진정 너희 선생의 욕 통해 역사하였노라!

너희는 그와 365일
단 일분일초도 떨어짐 없이
그 태어난 시점에서 지금까지
단 일초도 떨어지지 않고
그를 본 자 있느냐? 없지 않느냐?

그러나 나는 그를 보았다.
그러니, 자신 있게 확실히
내 모든 맘 다해 그를 사랑하며,
그의 모든 조건과
그를 내가 이 시간 증거 하노니

이는 전에도 없었고
후에도 없을 자이니라!

진정 사랑의 역사 짧은 자이다.
그를 진정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라.
그 마음, 그 심정 깨달아라.

지금도 그 작은 소년 이었던 선생,
변치 않은 그 순수한 사랑과 그 모습으로
갈수록 더 깊고 진한 사랑으로
더욱더 부활된 사랑으로
내게 다가오는구나.

그러니, 너희는 너희의 스승 된 선생의 모습처럼
첫사랑을 지키고 늘 순수하게 나아올지어다.

사랑한다.
나의 사랑 섭리사 모든 자들이여.

진정 이 역사 제대로 알고,
선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,
나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아갈지어다.
알겠느냐?

사랑한다.

알고 절대 오해,
요동치 않는 너희가 되길 원하노라.
사랑한다.

너희의 사랑, 나 주 예수 그리스도.